

“포스코는 전원 정규직 전환 책임 이행하라”

포스코하청지회 불법파견 전원 승소 ... 금속노조, 포스코에 직접고용 촉구



법원이 포스코 불법파견을 다시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수차례 사법 판단에도 불법을 유지하는 것은 고의적 책임 회피라며 포스코에 직접고용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이 11월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6차·7-2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88명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불법파견 구조를 규탄하며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했다.

엄상진 노조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로 포스코의 불법 구조를 재확인했다고 지적하며 포스코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는 악질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엄상진 사무처장은 “포스코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했다”며 “포스코 관리자 지휘·명령 아래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그동안의 법적 판단을

다시 확인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88명 전원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포스코가 위장도급을 통해 불법파견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김홍경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비대위원장은 “한 건 승소가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이 확인된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라는 사실조차 스스로 증명해야 했던 지난 시간은 가볍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에게도 길을 열어줄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공정 전반을 조사한 결과 불법파견 정황을 인정하고 포스코 원·하청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2년 대법원은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는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며 포스코의 사용자 책임을 못 박았다.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2천3백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총 9차 집단소송에 걸친 근로자 지위확인 투쟁을 이어 왔다. 하급심 법원들도 같은 판단을 반복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포스코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 의무를 권고했다.

“더 많은 현중 하청·이주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조직화 투쟁 선언 ... 원청에 단체교섭 수용 촉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확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원청 단체교섭 촉구 목소리도 더 높아간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이주 노동자 조직화 사업 시작을 알렸다. 현대중공업 원청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대법원이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을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원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부당노동행위 등을 멈추게 하려면 더 많은 현대중공업 하청·이주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모아야겠다고 판단했다”라고 조직화 투쟁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일 현중사내하청지회 비대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커지고 노동자 목소리가 커져야 현대중공업에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조직 확대를 위해 사업장 현장 순회, 노조 가입

캠페인, 하청 노동자 상담·권리 교육 등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 투쟁에도 더 힘을 실을 계획이다.

엄상진 노조 사무처장은 현대중공업 원청에 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 수용을 촉구했다. 엄상진 사무처장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현대중공업이다. 원청은 하청지회 교섭 요구를 거부해선 안 된다”라며 “현대중공업은 하청지회를 인정하고 단체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법원 늦장 처리를 꼬집기도

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017년 1월 현대중공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7년째. 지난해 4월 전원합의체에 회부, 올 10월 들어서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엄상진 사무처장은 “이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원청이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중공업 원청 역시 하청지회와의 교섭장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대법원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14기 조합 임원 선거 3차 투표 공고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6조(선거일 및 공고) 및 제43조(당선인 결정)에 의거 금속노조 14기 조합 임원 선거 3차 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06시 30분 ~ 12월 5일(금) 17시
2. 선출 대상 및 방식 :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기호		성명	선출 방식
1	위원장 후보	박상만	찬반
	수석부위원장 후보	황영선	
	사무처장 후보	허 원	